# 올해 'FA 최대어' 양의지 조아제약 프로야구 '대상'

## 포수 불구 빼어난 타격…신인상은 강백호

4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 별관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8 조아제약 프로야구 대상 시상식에서 각 부문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올 겨울 자유계약선수(FA) 시장의 최대어 양의지(31)가 조아제약 프로야구대상을 시상했다.

양의지는 6일 서울 플라자호텔 별관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8 조아제약 프로야구 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양의지는 포수임에도 불구하고 빼어난 타격 기량을 자랑했다. 올해 133경기에 출전해 타율 0.358(439타수 157안타) 23홈런 77타점 6도루 84득점의 성적을 거뒀다. 여기에 출루율 0.427, 장타율 0.585를 기록했다. 타율 2위, 출루율 2위, OPS(출루율+장타율) 1.012로 4위를 차지했다.

그는 '잠실 홈런왕'을 차지한 김재환의 뒤를 든든하게 받치며 두산 타선에 파괴력을 더했다.

수비에서도 든든한 안방마님의 면모를 한껏 과시했다. 안정적인 블로킹과 투수 리드를 선보였다. 도루저지율도 37.8%로 100경기 이상 출전한 선수 중 1위다.

올 시즌 두산 베어스의 영건 함덕주, 박치국, 이영하 등이 가파른 성장세를 자랑한 데는 양의지가 적잖은 힘을 보탰다는 평가다.

두산의 정규리그 우승에 큰 힘을 보탠 양의지는 올 시즌을 마치고 FA 자격을 얻었다. FA 시장의 최대어로 손꼽힌다.

양의지에게는 상금 1000만원과 순금 도금 글러브가 주어졌다.

양의지는 "9년 전에 이 시상식에서 신인상을 받았는데 다시 한 번 큰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김태형 감독님이 학교 다닐 때부터 뽑아주고 키워주셔서 감사하다. 마지막에 웃게 해드리지 못해 너무 죄송하다. 앞으로 웃을 일 많으시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양의지는 "FA 협상은 잘 진행되고 있다. 내년 시즌 준비를 위해 다시 운동도 하고 있다"며 FA 계약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KBO 정규리그 신인왕 수상자인 KT 위즈의 '괴물 신인' 강백호(19)는 신인상을 또 하나 챙겼다.

서울고를 졸업하고 2018년 신인 드래프트 2차 1순위로 KT 유니폼을 입은 강백호는 타율 0.290(527타수 153안타) 29홈런 84타점 108득점의 빼어난 성적을 거뒀다.

강백호는 개막전이었던 3월24일 광주 KIA전에서 3회초 좌월 솔로포를 작렬하며 강렬하게 데뷔했다. 올 시즌 개막 1호 홈런이다. 신인이 개막전 1호 홈런의 주인공이 된 것은 1983년 OB 베어스의 한대화, 조경환에 이어 역대 3번째다.

고졸 신인이 개막전 데뷔 첫 타석에서 홈런을 때려낸 것은 처음이었고, 대졸 신인까지 통틀어도 1998년 4월11일 롯데 자이언츠의 조경환에 이어 역대 두 번째다.

강백호는 9월15일 수원 삼성전에서 시즌 22호 홈런을 날려 1994년 LG 트윈스의 김재현이 기록한 고졸 신인 한 시즌 최다 홈런 기록을 다시 썼다.

강백호는 "선배들 앞에서 큰 상을 받을 수 있어 기쁘다. 많은 선배들 공이 다 치기 어려웠다"며 "내년 시즌 목표를 뚜렷하게 잡지 못했지만, 내년에 홈런 30개를 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고투수상은 SK 와이번스 좌완 투수 김광현(30)에게 돌아갔다.

팔꿈치 수술로 지난해를 통째로 쉰 김광현은 올 시즌 개막에 맞춰 복귀, 25경기에서 136이닝을 던지며 11승 8패 평균자책점 2.98으로 부활을 알렸다. 김광현은 포스트시즌에서 SK의 한국시리즈 우승에 앞장섰다.

넥센 히어로즈의 거포 박병호(32)가 최고타자로 선정됐다. 올 시즌 타율 0.345 43홈런 112타점으로 활약한 박병호는 홈런 공동 2위를 차지했다. 또 미국 진출 전인 2014년, 2015년에 이어 KBO리그에서 3년 연속 40개 이상의 홈런을 때려냈다.

최고구원투수상은 한화 이글스의 뒷문을 든든히 지키며 35세이브를 수확한 정우람(33)이 수상했다. 정우람은 시즌 내내 꾸준한 모습을 보이며 압도적으로 세이브 1위에 올랐다.

기록상은 LG 트윈스의 베테랑 타자 박용택(39)에게 돌아갔다. 박용택은 10년 연속 3할 타율, 역대 9번째 10년 연속 100안타, 년 연속 150안타를 기록했고, 통산 안타 수를 2384개로 늘려 양준혁이 가지고 있던 통산 최다 안타(2318개) 기록을 갈아치웠다.

NC 다이노스의 외야수 나성범(29)이 수비상을 받았다.

한화 이글스를 11년 만에 포스트시즌으로 이끈 한용덕(53) 한화 감독이 감독상을, 박종훈, 문승원, 김태훈 등 만년 유망주 투수들의 성장을 도운 손혁(45) SK 투수코치가 코치상을 차지했다.

재기상은 오현택(33·롯데)의 차지가 됐다. 두 차례 팔꿈치 수술을 받고 2017시즌 1군 경기에 한 번도 등판하지 못한 오현택은 올 시즌 72경기에서 64⅔이닝을 던지며 3승 2패 25홀드 평균자책점 3.76을 기록, 홀드왕에 등극했다.

최주환(30·두산)과 채은성(28·LG)은 나란히 기량발전상을 받았다. 최주환은 올 시즌 타율 0.333 26홈런 108타점으로 활약했다. 채은성도 타율 0.331 25홈런 119타점을 기록하며 유망주 꼬리표를 완전히 뗐다.

한국 선수로는 최초로 메이저리그(MLB) 월드시리즈에 선발 등판한 류현진(31·LA 다저스)과 콜로라도 로키스 불펜의 한 축으로 활약한 오승환(36)은 나란히 특별상을 받았다.

## 김진수, 벤투호 승선…아시안컵 대비 울산 훈련명단 확정

### 유럽파 빠지고 국내·아시아권 선수들 위주 구성

내년 아시안컵을 앞두고 울산에서 소집훈련을 할 축구대표팀 명단이 발표됐다.

대한축구협회는 4일 울산 동계훈련에 임할 23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한창 리그가 진행 중인 유럽파는 모두 빠졌고, 국내와 아시아권 리그 선수들 위주로 구성됐다.

조현우(대구FC), 김민재(전북현대), 김영권(광저우 에버그란데), 황인범(대전시티즌) 등 기존 대표팀 선수들이 포함됐다.

부상에서 회복한 김진수(전북현대)도 이름을 올렸다. 장윤호(전북현대), 김준형(수원삼성), 한승규(울산현대), 조영욱(FC서울) 등 4명은 생애 첫 A대표팀의 부름을 받았다. 벤투호 3기 소집 선수 중 정승현(가시마앤틀러스), 이유현(전남드래곤즈) 등은 제외됐다.

2019 UAE 아시안컵은 한국이 1960년 이후 59년만에 우승컵을 노리는 대회다.

이번에 발표된 훈련 명단은 아시안컵 참가 최종명단은 아니다. 벤투 감독은 훈련 마지막 날인 20일 오후 2시 울산 롯데호텔에서 아시안컵에 나설 최종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벤투호는 23일 오전 1시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로 출국한다.

뉴시스

## 모드리치, '메날두' 시대 끝내다

## "기분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감격

### 크로아티아 선수 첫 발롱도르 수상

'메날두 시대'의 끝을 알리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헌신적이면서도 화려한 플레이로 챔피언스리그 우승과 월드컵 준우승의 중심에 섰다. 아들의 수상 장면을 지켜본 모드리치의 아버지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모드리치는 "2018년은 나에게 꿈의 해"라면서 커다란 족적을 남긴 1년을 돌아봤다.

모드치리와 레알 마드리드의 영광을 함께 한 호날두는 모드리치에 밀려 2위에 그쳤다. 레알 마드리드는 30위 안에 8명의 선수를 배출했다. 프랑스에 월드컵 타이틀을 안긴 앙투안 그리즈만(아틀레티코 마드리드)과 킬리안 음바페(파리생제르망)는 3, 4위에 올랐다. 챔피언스리그와 월드컵에서 조기에 자취를 감춘 메시(바르셀로나)는 5위로 처졌다.

뉴시스

지난 10년 간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허락되지 않은 발롱도르가 마침내 새 주인을 만났다. 주인공이 된 루카 모드리치(레알 마드리드)는 "기분을 말로 표현하기가 무척 어렵다"며 감격스러워했다.

모드리치는 4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발롱도르 수상 후 이렇게 밝혔다.

레알 마드리드의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3연패의 주역인 모드리치는 크로아티아 대표팀을 이끌고 출전한 러시아월드컵에서도 준우승이라는 혁혁한 성과를 냈다.

모드리치는 각국 축구대표팀 감독, 주장과 기자단으로부터 가장 많은 표를 따내며 첫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크로아티아 선수의 발롱도르 수상 역시 처음있는 일이다. 메시와 호날두가 아닌 다른 선수가 발롱도르를 차지한 것은 2007년 카카(브라질) 이후 11년 만이다.

모드리치는 "어린 시절 우리 모두는 꿈을 갖고 있다. 내 꿈은 큰 클럽에 소속돼 중요한 트로피를 받는 것이었다"면서 "발롱도르는 단순한 꿈 이상이다. 이를 받게 돼 정말 영광스럽다"고 소감을 전했다.

올해 보여준 모드리치의 모습은

## '아듀' 전북 최강희 감독

## K리그1 감독상 선물받아

최강희 전북 현대 감독은 떠나는 순간까지 유쾌함을 잃지 않았다.

최 감독은 3일 서울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열린 2018 KEB하나은행 K리그 대상 시상식에 참석했다. 전북 감독으로는 마지막 공식석상이다.

"참가에 의의를 두겠다"는 최 감독은 K리그1 감독상이라는 작별 선물까지 받았다. 전북의 우승을 이끈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최 감독은 K리그1 각 팀 주장(30%), 감독(30%), 기자단(40%) 투표 결과 100점 만점의 환산점수 중 41.93점을 받아 36.76점의 김종부 경남FC 감독을 근소한 차이로 제쳤다. 기자단 투표에서는 44표에 그쳐 74표를 받은 김 감독에게 밀렸으나 동료 감독 투표에서 7표를 이끌어내며 2표에 머문 김 감독을 제쳤다. 최 감독은 동료들 덕분에 기울어진 승부를 뒤집을 수 있었다.

최 감독은 "감독상은 선수들이 만들어 준다고 생각한다. 밖에서 보면 1강이라 좋아보이지만, 선수들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팀을 위해서 플레이를 해줬기에 내가 상을 받은 것 같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동료 지도자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낸 비결에 대해서는 "잘 생겨서"라고 답해 웃음을 자아냈다. "경로 우대가 아닐까. 나는 '앓던 이'였다. '저 인간을 빨리 보내야한다'는 생각으로 준 것 같다"는 다양한 해석을 내놨다.

뉴시스